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22년도 제56회 정기총회' 3월 11일 개최
전라남도,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추진
전라남도, 폐산업시설 4곳 선정하여 지역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나서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제56회 정기총회' 성료
전북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공지
정읍시, 취약계층 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앞장'

10

설계경기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건축설계 공모



11

종합뉴스

대한건축사협회, 'BF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제1차 교육생 모집
2022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상 공모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확보 나서

12

독자광장

세상사는 느낌 _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한 편의 시 _ 풍진세상
건축사 만평
한 장의 사진 _ 백경 김무규 고택 인채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02

시론 / 이·취임사

시론 _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문화재 보존
제6대 편집인 취임사 / 제5대 편집인 이임사

03

종합

사랑에서 _ 식목일, 탄소중립 그리고 건축
건축사 Q&A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사재출연하여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 전달
광주건축사회, 제3회 이사회의 열고 신임 부회장 2인 선임
광주건축사회, 2022년도 광주건축사회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문화재 보존



신옹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wjshin@chosun.ac.kr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수리기술전문위원

문화재는 이 시대에 잘 지키고 가꾸어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수리, 복원, 해체보수 등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명연한을 연장해야 한다.

건축문화재 기록화의 흐름

건축문화재의 유지관리는 수리공사, 기록화사업, 정밀실측조사, 수리보고서 작성, 안전진단, 정기조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문화재 실측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1956년부터 실측조사가 시작되었고 1973년부터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한국의 고건축」이라는 일련의 체계적인 실측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다. 1971년부터 민간 실측설계사무소가 생긴 이후 국가기관뿐 아니라 이들이 각종 건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9년부터는 「밀양 영남루 실측조사보고서」를 제1호로 시작하여 중요 건축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보고서가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새로운 기록 방식, 3D 스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도입은 건축문화재 실측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평판 실측 대신에 광파기를 사용하게 된 것과 2010년대부터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실측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오토캐드의 장점과 BIM 디자인 툴의 장점을 모아 3D 형상의 건축물 정보에서 도면정보와 속성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식으로 건축문화재의 데이터 집적이 시도되고 있다.

3D 스캐너는 플랜트, 제조, 의료, 컴퓨터 그래픽 분야 및 응력을 받고 있는 사면의 변형 분석, 터널 굴착량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재 분야의 경우 매장문화재, 건축문화재, 석조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콘텐츠 구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높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건축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경관을 형성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형 및 지물 데이터를 3D로 계측하고 이를 저장해두거나 보수 시에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원래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대상물로부터 형상이나 색상 정보를 획득하여 2D 또는 3D 도면의 제작, 모형 제작 등을 함으로써 제품 생산 등에 활용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최초 기계 산업부터 발전하였다. 레이저 스캐너 등 측정 장비의 발달과 측정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보존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스텐퍼드대학 등에서 실시한 미켈란젤로 작품에 대한 3D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가 수행된 바 있으며, 일본의 도소다이지(唐招提寺) 금당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구조의 변형 상태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문화재 보존

최근 3D 스캐너는 문화재의 해체보수, 정밀실측 및 진단, 기록화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활용도는 높다.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의 실측 결과물보다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건축문화재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재의 특성, 결구부의 이완, 하중의 지속 등으로 인해 부재의 고유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여 건축문화재가 전체적으로 변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여 육안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변화의 정도가 심하여 건축문화재의 자립에 중대한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 이는 철골구조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은 균질한 재료가 아닌 목재가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자 현상으로 원목(原木)이나 원석(原石)이 사용되는 건축문화재에서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고비용을 들여 제작된 건축문화재의 3D 데이터는 단지 해당 문화재의 소실을 대비한 기록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국토 어디선가 건축문화재에 대한 3D 스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취득 시간차가 있는 동일 건축문화재의 3D 데이터는 변위계측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취득하기까지는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량이 만만치 않다. 고가의 데이터 취득 장비, 고성능의 그래픽카드가 달린 워크스테이션, 정합 소프트웨어까지 갖춰야 하는 것이 많다. 해상도에서 3D 스캐너와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초소형 라이다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비용으로 제작된 기존의 3D 스캔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변위계측 시스템에 의해 분석되므로 건축문화재의 전반적인 변위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관심분야인 건축문화재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건축문화재의 보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도 기대된다.

제6대 편집인 취임사 / 임기 : 2022. 4. 11. ~



박주현 건축사
바움 건축사사무소

주시는 각 지역 편집위원님들과 곽승국 기자님의 정성과 노고로 인해 '건축문화사랑'은 명실상부한 지역 건축사 신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편집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대 편집인들의 노력에 흠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건축문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인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지역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문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민하여, 건축사 회원들과 독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5대 편집인 이임사 / 임기 : 2020. 4. 11. ~ 2022. 4. 10.



박종호 건축사
유민 건축사사무소

2009년 말쯤의 창간호를 기점으로 2010년 초부터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10여 년 했고 편집인으로서 2년을 더 했으니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첫 편집인을 맡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아직도 우리의 일상을 움츠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지는 몰랐고 이렇게 사회가 변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 속에 우리의 건축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건축문화사랑 신문 또한 그 과도기적인 변화의 한복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비평을 통해 깊은 소리 된소리를 내기를 바라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신문이었으면 합니다.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 또한 독자로서 응원과 된소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6대 편집인으로서의 임기를 이어받는 박주현 편집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지금껏 이끌고 활동해 주신 모든 편집위원님들과 논설인들, 학생기자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는 지역의 소통과 문화를 책임지는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사랑에서 _ 여든여덟 번 째

식목일, 탄소중립 그리고 건축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기 시작해 4월이 되면 벚꽃으로 거리마다 장관을 이뤄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4월은 새싹과 꽃들의 향연 때문인지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예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다. 식목일의 연원을 보면 신라시대까지 올라가지만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식목일을 공휴일로까지 지정해가면서 나무 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유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산림이 황폐해졌으며 겨울철 난방연료로 나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산은 민둥산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여름철 장마 시 산사태에 취약하게 되어 방재를 위해 나무 심는 것을 나라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삼아서 산림을 관리해왔으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초목으로 우거진 산림이 조성되었다.

대대적인 나무심기운동의 결과와 난방사용연료의 변화로 산림의 녹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변경되고 식목일 행사 또한 많이 줄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이유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아니 잘 가꿔야 한다는 표현이 맞을듯하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오던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맺게 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하면서 탄소 저감에 대한 각 분야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정부에서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된다.

그 내용 중 건물 분야 내용을 살펴보았다. 주로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방안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나무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 내는 방법도 있다. 건물 분야에서도 나무의 탄소흡수능력을 이용한 탄소 저감효과를 늘릴 수 있다. 건물에 목재를 구조재나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량만큼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한 탄소를 잡아두게 되는 탄소저장고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무를 건축물의 주요구조재와 마감재로 사용해왔으며, 인공화합물로 만들어져 새집증후군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여타의 마감재와는 달리 목재는 인체에 유익한 건축마감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건축에서 건축재로서 목재는 사용에서 제약을 받는다. 현대 건축물의 대형화에 대한 구조내력의 한계와 화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선택의 일환으로 대형 목구조 건축물 축조와 화재안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정부 건축물 신축 시 목재 5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건축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를 정책으로 추진 중이어서 목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목재사용이 건축 분야에서 늘어나게 된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무는 초기 성장 과정 중에 탄소흡수량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건축재로 사용 가능한 수종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목재를 벌채하여 건축재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림지를 만들기 위해 벌목하는 행위를 두고 산림훼손을 문제 삼아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조림지 조성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자문위원 _ 강동영 건축사(archikang@naver.com)

건축사 Q&A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뿐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0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 절차〉

1.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
2.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검토 실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3. 단속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되는 효과(페이퍼컴퍼니(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 전·후 대비 입찰 참여업체 약 40% 감소)가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건축문화 /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行 人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 집 인	박종호
부 편 집 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 문 위 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 담 기 자	곽승국
논 설 위 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법,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 집 위 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 록 번 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 록 일 자	2010-01-25
편집 및 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 고 신 청	T. 062)521-0025

건축문화 /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 / 사랑 원고모집	
<p>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p> <p>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 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p> <p>원고마감 : 매달 25일</p> <p>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p> <p>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p> <p>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p> <p>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p>	

	법무법인 가현
www.welaw.co.kr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85번길 11-9 T. 062-236-0222 / F. 062-236-0608 M. 010-3000-6028 / E. choi092@hanmail.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담양카페 나달

백민곤 건축사 / (주)락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29, 애플자식센터 레드비동 제2호

Tel. 062-972-2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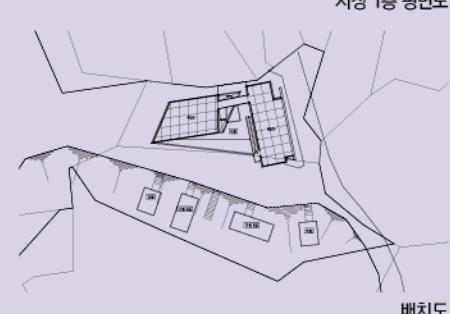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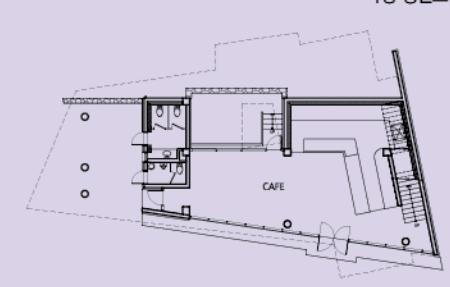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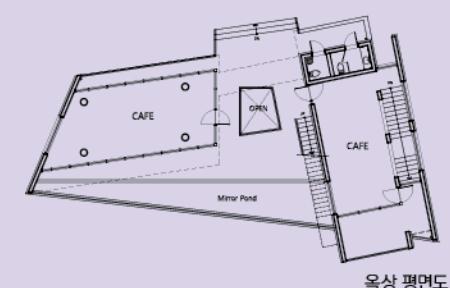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88 / 대지면적 : 3,705m² / 건축면적 : 220.39m² / 연면적 : 236.89m² / 규모 : 지상 2층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조 / 주요마감 : 스타코플렉스, 현무암

“ 대지는 대도시 인근 광주호가 내려 보이는 경사지에 위치해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도시인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내·외부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나도록 계획하였고,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한 다양한 외부공간에서의 진입과 건축주가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 키운 대지 곳곳에 위치한 나무와 화초들 사이에 자리한 휴게공간이 풍성함을 더해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사용자들의 재방문 시 다른 위치에서 다른 계절과 다른 시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풍경을 느끼기를 기대해 본다.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EQ공법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문의전화 1666-5123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한국구조물진단
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사재출연하여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 전달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등 8인에 대해 감사장 수여도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지난 3월 23일 광주 북구 중흥동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인채 회장은 지난해 3월 광주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평소 건축사 회원들의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러 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일천만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이번 정기총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 10명은 건축사 회원들의 신청 및 추천을 받아 자체 장학위원회의 면밀한 선별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다.

정인채 회장은 “건축사 회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을 위해 회장 임기기간 동안 사재출연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인과 건축 관계 기관 공무원 등 8인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감사장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언론인 수상자는 전남일보 박성원 편집국장으로 평소 지역건축문화에 관심을 갖고 광주건축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됐다.

건축 관계 기관 공무원 수상자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최원석 건축설비부장과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과 기윤 주무관, 남구청 주택과 강동일 과장, 남구청 주택과 장용규 주무관, 동구청 건축과 이영건 주무관, 북구청 건축과 최귀한 주무관,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이진형 주무관으로 광주시민들의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건축사회 임원임기를 만료한 이사와 감사, 우수 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개최됐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임 감사와 이사, 대의원 등을 새로 선출했다.

▶ 신임이사 및 감사, 대의원

구분	성명	상호	비고	구분	성명	상호	비고
이사	박재홍	(주)흥 건축사사무소	임기 2년 대의원	박홍근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한명석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안성섭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영은	건축사사무소 사람		정상채	초석 건축사사무소		
	한상훈	(주)건축사사무소 휴		한상훈	(주)건축사사무소 휴		
	최경락	라일 건축사사무소		안천수	(주)건축사사무소 누리		
	윤대우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김준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감사	유형두	건축사사무소 가원	임기 2년 1년	길종일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대의원	강필서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정기현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영문	이영 건축사사무소		이혜란	나래 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제3회 이사회의 열고 신임 부회장 2인 선임

지난 3월 28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3월 28일 광주 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부회장 선임과 각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신임 제1부회장에는 (주)흥 건축사사무소 박재홍 건축사를 제2부회장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한명석 건축사를 만장일치로 선임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 편제를 개편했는데 기존 지역건축안전센터대응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사 협회의무가입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 구성 흐름에 동조하여 조사위

원회를 신설했다.

총 광주건축사회 14개 위원회와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개 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의결했는데, 특히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인에 바움 건축사사무소 박주현 건축사를 신임 편집인으로 선임하며 본지의 대대적인 개편을 기대했다.

다음은 14개 위원회 편제 및 위원장 구성 내용이다.

위원회명	위원장	사무소명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심상봉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SIM	'22.4월~'23.3월)
윤리위원회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법제위원회	한상훈	(주)건축사사무소 휴	
국제위원회	안길전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인사위원회	김선영	일우 건축사사무소	
안전도시재생위원회	이영문	이영 건축사사무소	
여성위원회	최진화	건축사사무소 현산	
정책개발운영위원회	강필서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교육홍보위원회	박홍근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청년위원회	김준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예산편성위원회	김 곤	선택 건축사사무소	
공공발주제도개선위원회	장정수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사위원회	강형선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편집위원회	박주현	바움 건축사사무소	
연금관리회 운영위원회	조희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연금관리회 장학위원회	정상채	초석 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2022년도 광주건축사회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오는 5월 3일 전남 무안 CC에서 개최... 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2022년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오는 5월 3일 전남 무안 CC에서 개최된다.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15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골프동호회 소속 회원은 골프동호회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28496번을 참고하여 신청양식 작성 후 팩스 (062-528-0026) 또는 이메일(gjkira@empas.com)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이번 대회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회원 모두에게 그 간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관욱 골프동호회 총무에게 문의바란다.

광주에서 ‘제1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개최

오는 4월 28일과 29일 광주보라매구장에서...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주관



제1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오는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광주 광산구 보라매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전국 17개 시·도 20여 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되고, 이 자리에서 건축꿈나무 육성지원금 전달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조희환 회장은 “이번 축구대회가 건축사로서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며 회원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도 “빛과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강태주 건축사 / (주)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화산로 257, 부용빌딩 501호

• 변경(소재지)

- 조원철 건축사 / 자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동배마을길 36-7, 2층

- 박현우 건축사 / 이공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충장로안길 7, 3층 307호

- 오 혁 건축사 / 연담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수등로258번길 20, 2층

• 결혼

- 이기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 아들 결혼 - 04월 09일(토)

- 김성용 건축사 / 에덴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4월 09일(토)

• 부고

- 진성수 건축사 / (주)수목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4월 01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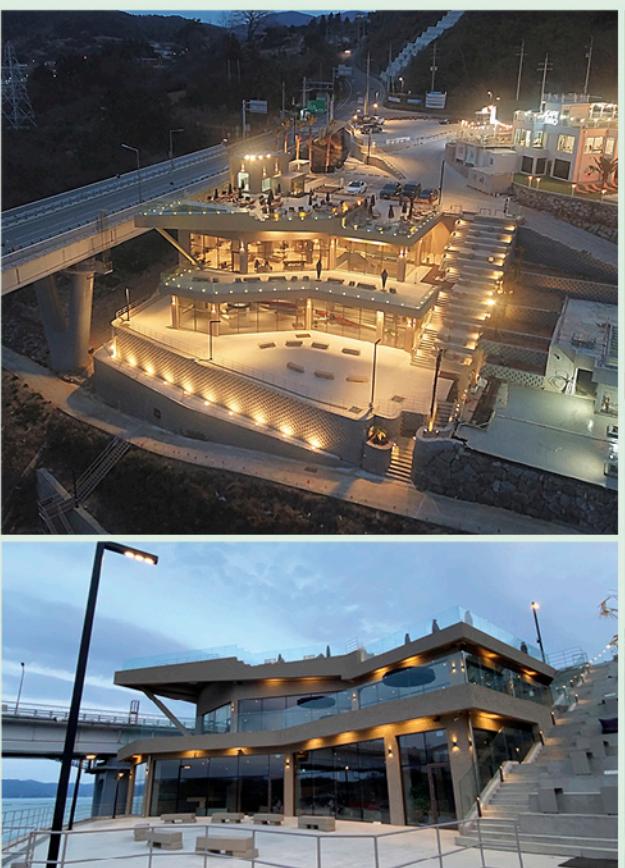
- 최승민 건축사 / 대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4월 06일(수)

cafe MAHE

이 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17, 7층
Tel. 061-692-5011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397 외 4필지 / 대지면적 : 2,091m² / 건축면적 : 739.20m² / 연면적 : 1,142.25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주용도 : 소매점, 휴게음식점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STO Lotusan



전남건축사회, '2022년도 제56회 정기총회' 3월 11일 개최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위임총회로 진행... 신임감사에 광양지역 강성민 건축사 선임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지난 3월 11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제암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에게 위임하는 위임총회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회칙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정기 총회를 위임총회로 개최한 것이다.

한형민 회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회 운영 참여에 감사함을 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회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3개의 안건이 채택되어 심의되었으며 제1호의안 2021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수지 결산서(안) 승인의 건과 제2호의안 2022년 일반 및 특별 회계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의결되었고, 제3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과 제4호의안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출됐다.

구분	성명	상호	지역
이사	최세호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나주
	유성우	유성 건축사사무소	광양
	문경숙	문 건축사사무소	여수

감사	강성민	이노 건축사사무소	광양
	박용묵	(유)다산 건축사사무소	목포
	김선종	삼우 건축사사무소	순천
	김동만	대림 건축사사무소	목포
	김용균	유로 건축사사무소	여수
	이주경	건축사사무소 샘터	여수
	박병엽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광양
	김병원	상록 건축사사무소	화순
	김재호	건축사사무소 휘람	무안
	문성식	AUD 건축사사무소	장흥
	박규남	라인 건축사사무소	해남

전라남도,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추진

전라남도, 4월 공고해 국제감각 갖춘 랜드마크로... 2025년 6월 개관 목표

전라남도가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의 국제설계 공모에 나서는 등 건립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나주시 영상데마파크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저명한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 감각의 작품을 접수하기 위해 국제설계공모로 진행키로 했다. 심사위원도 외국의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를 참여시켜 최상의 작품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의병과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공모지침서를 4월까지 확정, 공고할 방침이다.

1단계 개념설계 심사와 2단계 본 심사를 거쳐 8월께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4월 공고 이후 나라장터와 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카임



업 하나로
모든 감리서류!!



5인 톈시사용
제일



비상주
상주
해체
식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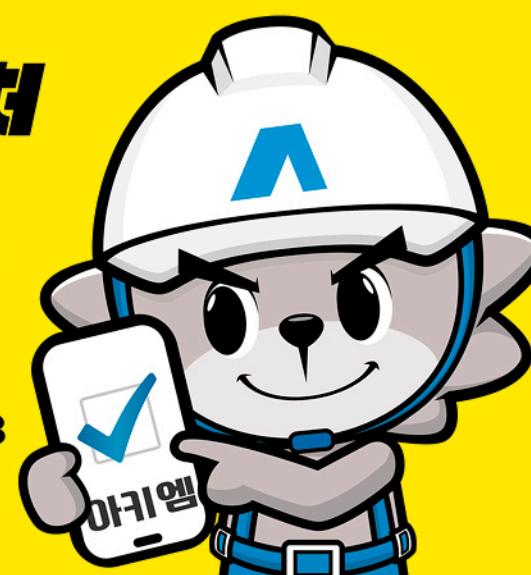


PDF
도면
일로도
마크업

K비대면바우처
새해대박!
최대 280만원지원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

놓치면 후회!!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산속에 감춰진 듯하지만 탁 트인 전망, 의병의 군량미를 실어 나르던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수변공원과 연계 등 장소적 특성을 잘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남도 의병 역사 공원의 큰 그림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폐산업시설 4곳 선정하여 지역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나서 여수 덕양역사, 옛 나주극장 등 4개소 2024년까지 120억 원 들여 재생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방치된 폐산업시설 4곳을 선정, 2024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지역문화예술 공간 만들기를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노후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장흥교도소 재생사업 등 4개소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곳은 여수 덕양역사, 옛 나주극장, 곡성 침곡역, 곡성 죽곡장터다.

사업을 완료해 운영 중인 곳은 담양 담빛예술창고,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광양 예술창고 등이다. 이 가운데 2015년 제일 먼저 사업을 완료한 담빛예술창고는 옛 양곡창고(남송창고)를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나무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문예카페로 조성하는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매년 15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담양의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추진 중인 4개소는 옛 장흥교도소, 옛 나주정미소, 옛 무안고, 담양 봉안 정미소로,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들 노후 시설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 주민이 향유하는 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옛 나주극장은 1990년 극장 영업을 중단한 후 방치돼 있다. 나주시가 매입해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테마로 시민영상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폐장한 옛 죽곡장터와 입면장터를 활용해 무인점포, 문화공유공간, 야간 경관 등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의 감성을 충전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또 1936년 일제 강점기에 산림자원 운송 목적으로 설치했다가 광복 후 폐역이 된 침곡역을 섬진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철도노선 폐선 이후 기능을 상실한 옛 철도역사 건물인 덕양역사와 철도신호 취급소를 활용해 방송·예술인 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특정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며 관광객 유입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 문제 해결 나서

조은프라자·황금플라자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

순천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계획부지는 여수~고흥 '일레븐 브릿지'의 중심 백야도 초입에 위치하며 백야대교를 바라보는 뛰어난 경관을 가진 곳이다. 바닷가 경사진 부지의 특성을 살려 과도한 토목공사 없이 건물을 반지하 형식으로 계획하여 주변 경관과 위화감 없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관광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업 부지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싶다는 건축주의 의도를 살려 매장 내부 및 옥외공간에서 남해바다의 전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건물을 배치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심플하고 모던하게 계획하였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상 건축물은 조은프라자 건물과 황금플라자 건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미운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상권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건축물 이해관계자와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화된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을 종합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순천기적의도서관, 故정기용 건축가 11주기 추모 전시 운영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적의도서관에 깃든 건축가의 뜻 알리기 위해



순천시는 지난 3월 11일 故정기용 건축가의 11주기를 맞아 3월 13일 까지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 추모전시를 운영했다.

故정기용 건축가(1945~2011)는 순천기적의도서관을 비롯해 6개의 기적의도서관(순천, 제주, 서귀포, 진해, 정읍, 김해)과 무주공공프로젝트

(1997~2006),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와 추모의 집 등을 설계한 건축가다.

공공건축에 대한 헌신과 사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설계로 건축계의 공익요원, 협치의 건축가로 불린다.

이번 전시는 故정기용 건축가를 기리고 기적의도서관에 깃든 건축가의 뜻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적의도서관 입구 전시실 '건축가의 책상'에 정기용 건축가와 저서를 소개하고, 도서관 공간별로 건축가의 의도를 설명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간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전재식 건축사 / (주)강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899, 2동 202호

• 변경(소재지)

- 김용균 건축사 / 유로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54-7, 2층

• 부고

- 김재우 건축사 / 토담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3월 04일(금)

- 서계원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서건축 / 모친상 - 03월 08일(화)

- 박미라 건축사 / GA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3월 23일(수)

- 김정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진 / 부친상 - 04월 01일(금)



전북건축사회, ‘제56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3월 22일 전주에서... 신임감사에 (유)예일 건축사사무소 권중곤 건축사 선출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3월 22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 신관 5층 그레이스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권연하 부회장과 전병갑, 정명철 이사, 김남중 감사, 건축사 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박태식 회장, 경기도 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충청남도건축사회 정광영 회장 등 내외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면총회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박진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모두 단

합된 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우리 전북지역의 건축문화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은 원안 대로 승인되었으며,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서는 감사에 전주시 (유)예일 건축사사무소 권중곤 건축사를 선출하고, 이사와 대의원의 선출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했다.

전북건축사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공지

오는 4월 13일까지 온라인 신청...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접수

전북건축사회는 오는 4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를 도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전라북도에서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함에 따른 협조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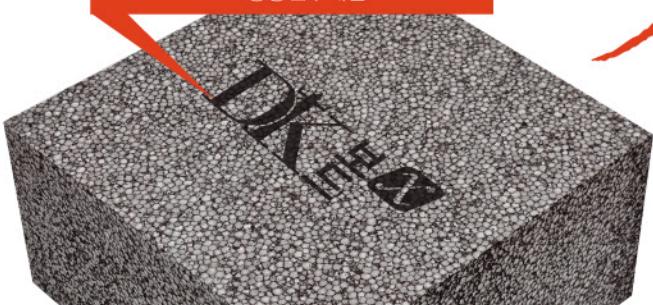
신청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이미 등재된 자는 신규 신청이 불 필요하나, 교육 이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 공문시행 2282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S 준불연 단열재

DK |주|디케이보드 X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혁
명



준불연 EPS 단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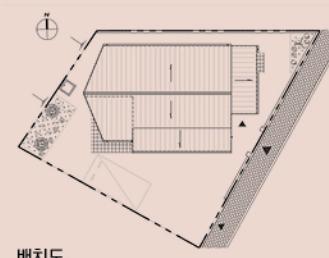
DK 볼 X®

DK보드 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 벨 고객센터 1855-2240



부동재(不同齋)는 단란한 네 식구를 위한 단독주택이다. 집 명칭은 ‘남들과 같지 않게’라는 뜻으로 건축주 삶의 모토이자 우리 가족의 삶을 담은, 남들과는 같지 않은 집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었다.

인근 수변공원의 조망을 살린 배치와 효율적인 동선으로 가사의 편의성을 높인 1층 평면 계획,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2층 평면을 계획하였고, 향의 특징을 살려 사방이 모두 다른 형태를 띠는 입면을 계획하였다.

‘집’이란 곳은 그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삶을 담는 공간이다. 집이란 장소에 건축주 가족의 취향과 삶이 묻어나고 한 켜 한 켜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는 행복한 안식처를 만들고자 하였다. 건축주 가족의 일상, 취향, 삶이 고스란히 담긴 ‘부동재’는 향에 따른 최적의 배치 계획과 기능적인 측면을 살린 공간 계획이 결합하여 집 명칭 의미를 살린, 건축주 가족을 위한 유일한 집 ‘不同齋’가 되었다.

정읍시, 취약계층 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앞장’

총 4억 3,000만 원 투입, 472세대 대상 전기·가스·도배 등 시설 보수

정읍시가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시는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472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시설, 보온단열재, 도배·장판 교체 등의 시설을 점검 보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계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65가구 대상 3억 원을 투입하고,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사업으로 400가구에 1억 원,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으로 7가구에 3,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화재나 범죄 위험이 감소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복권기금)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정부 정책의 조기 집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위기 가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추운 겨울이 오기 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시, 옛 남부시장 원예공판장 건물 2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위한 공유 스튜디오와 교육시설 등 갖출 예정



전통시장 내 방치된 공간이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을 키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4월 1일 전주시는 ‘2022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국비 9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전주남부시장 옛 원예공판장을

전북 회원동정

• 퇴회

- 최근영 건축사 / 조이풀 건축사사무소 - 2022년 3월 31일(목)

• 변경(소재지)

- 김정배 건축사 / 제이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20, 104호
- 김성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로운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56, 2층
- 이응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건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8, 201-2호
- 고대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오 /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61, 3층 302호
- 김진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156-6, 1동 2층

• 결혼

- 문병률 건축사 / 포럼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4월 02일(토)

• 부고

- 최 민 건축사 / 최민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3월 15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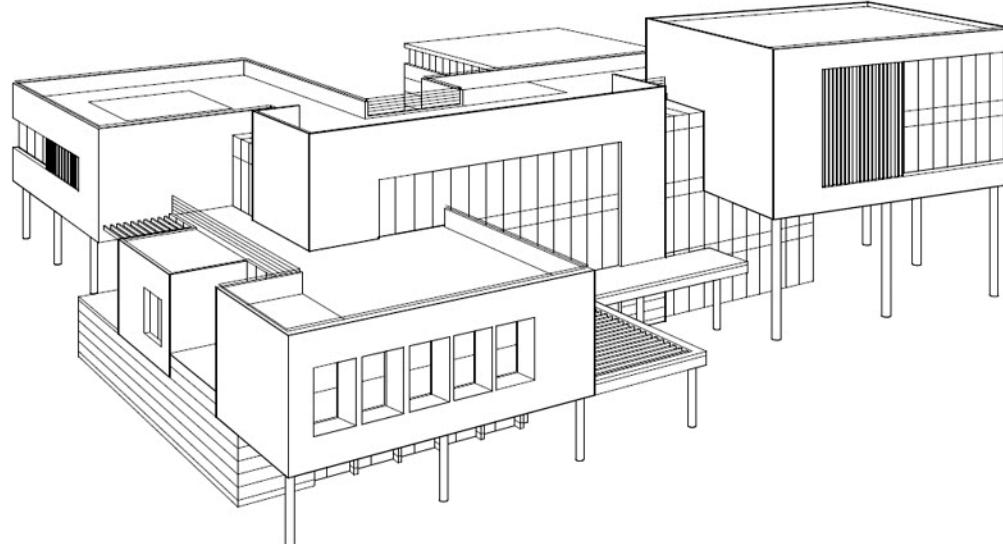
- 김영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 / 장모상 - 3월 21일(월)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청각·언어장애인 중심의 각종 편의시설 등이 겸비된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유 공간 효율적 활용 등 시너지효과를 꾀하며 공유·개방을 통해 타 유형 장애인 및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복지·커뮤니티 공간 구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심사위원 : 김근성(경상대), 강형주(조선대), 박종호(유민 건축), 오상목(호남대), 이민아(협동원 건축),
이원수(순천대), 정영법(로운 건축)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33-1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8,466.00m²
- 건축면적 : 2,565.02m²
- 연면적 : 5,020.90m²
- 용 도 : 사회복지시설
- 공사비 : 8,167,000,000원



■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배리어 프리 건축계획



■ 기능별 조망에 따른 매스와 차별성을 둔 외관디자인



■ 진입광장과 정면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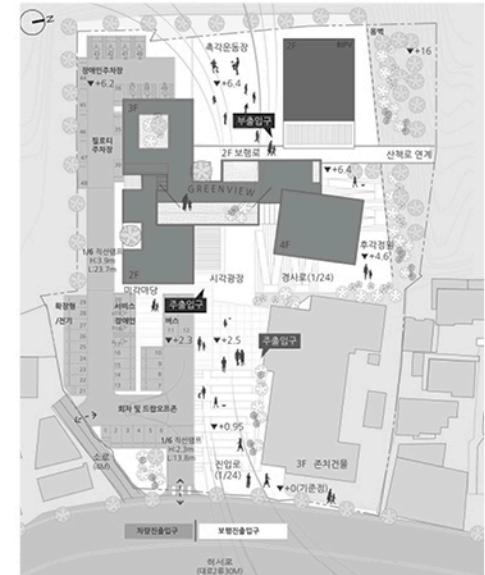


■ 미디어 경사로와 눈에 띄는 상징적 매스



당선작

이충미 건축사 / 진짜노리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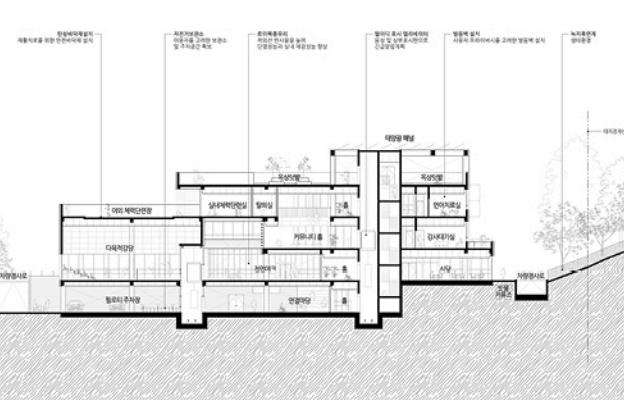


빛, 들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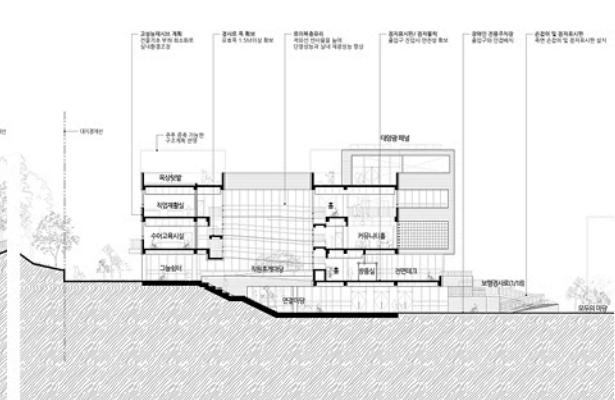
빛이 가득한 열린 공간에서 입체적이고
자유분방한 공간환경을 누리다.



■ 기능별로 다양한 층고를 반영하고 시각적 소통을 고려한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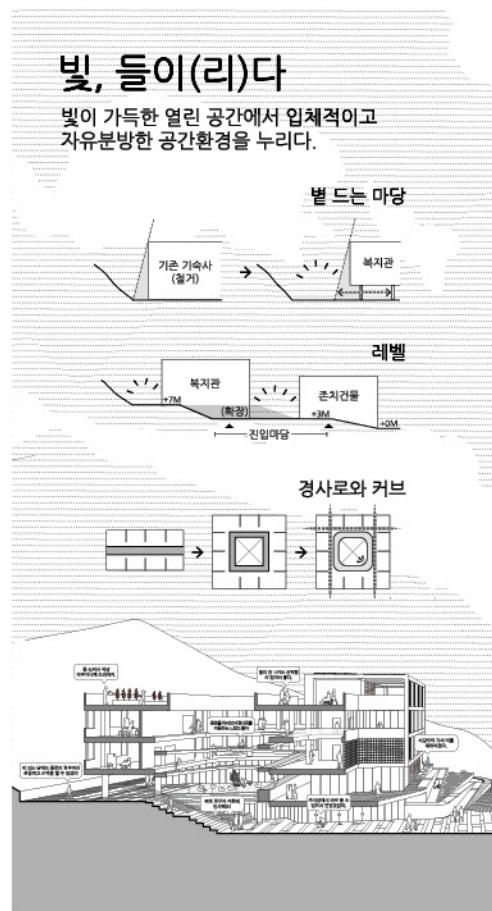


■ 중정을 통한 개방적인 공간을 구현



2등작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광천 건축사 / (주)더시선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BF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제1차 교육생 모집

건축사 30명 대상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 4월 29일 교육 실시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교육비	모집인원	지 원 자 격
2022년 4월 29(금) (1일 과정/총 8시간)	전액 무료	30명 (선착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 건축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4월 15일까지 'BF인증의 이해와 적용사례' 제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를 대상으로 BF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업무 수행 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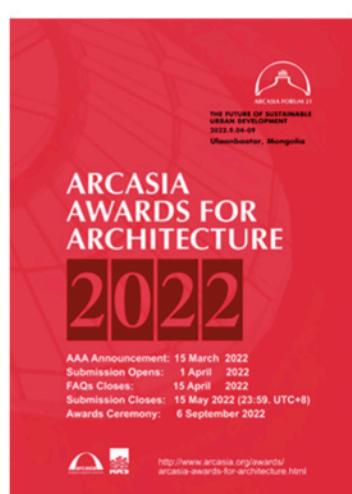
4월 29일 단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국비지원 100% 무료 교육으로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와 교육교재 및 간식이 제공된다.

교육지원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 건축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건축사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모집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 다운 및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상 공모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 개시... 5월 16일까지 등록 마감...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는 지난 3월 15일 '2022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의 참가대상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의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와 지역에 관계없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이다.

출품작은 등록 개시일(4월 1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해당 공모전의 건축상을 수상했던 이력이 있는 작품은 제외된다.

질의응답 마감은 4월 15일까지이며 등록 마감은 5월 16일(00:59), 시상식은 9월 6일까지이다.

참가비는 1개 작품 출품 시 참가비 100달러(한화 약 12만 원)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공지사항 22841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 확보 나서

2025년 개관 예정...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 모형, 유품 등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제1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를 지난 4월 1일 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0-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

로'라는 주제와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전시기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된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 구입과 더불어 4월 1일부터 자료의 기증도 받을 예정이다.

1950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건축 관련 자료 일체가 기증 대상이 되며, 기증자에게 감사패 및 기증증서 수여와 함께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예우할 계획이다.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소장품에 대해서는 박물관 소장 자료로 등록하여 전시 및 학술·교육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Tel. 044-201-3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2일 시행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진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1일,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2021년까지 총 528명의 합격자 배출)하고 있다.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 2차 시험은 10월 22일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온라인(<https://bea.kemco.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안성 지원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보고회 가져

지난 3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월 30일 '2022년도 제2회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건축규정 기반 '건안성 지원시스템 개발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정섭 위원장, 정형봉·안경희 총무위원, 조영수·강봉유·김남용 위원, 김경만·남상득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주요 안건으로 '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 지원시스템'(건안성 지원시스템) 완료 보고가 진행됐다.

건안성 지원시스템은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민원인이 작성하고 검토자가 체크리스트와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4월부터 17개 시도건축사회 추천 건축사 43인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이뤄지고, 이후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New, Different, Better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www.bs-base.co.k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세상사는 느낌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사 만평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5학년이 시작되면서 졸업작품을 준비하게 되었다. 졸업작품의 주제는 '건축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내포하는 종합적인 설계'라는 내용이었다. 건축의 복합성이나 공공성은 많이 들어봤고 접근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많이 듣고 수업시간에도 배웠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다라는 말은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나 지구를 생각해서 미래시대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환경을 유지하여 나간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산업 전 분야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흔히 보이는 것은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재료 등 친환경 제품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학교 3학년 2학기에 오피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환경 건축을 접목해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그때 처음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섞어 설계했었는데 설계 초반에는 그저 녹지를 넣어주거나 벽면녹화 등 녹색 건축만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이 지속가능성 있는 건축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패시브하우스에 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기 위해 많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단순히 녹지만으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지속가능한 건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을 공부하다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례를 보게 되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마스드르 시티는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데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대부분 태양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도시 안에서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고 건물 맨 꼭대기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데 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의 1/3 정도를 태양전지판을 이용해 발전시켜 일단 도시의 건물에 비해 에너지를 절반이나 적게 사용하게 된다.

이런 예시를 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 설계를 통해서 하나의 건축물에서 발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해야 하는 설계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도시에 지속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풍진세상

누군가 옛 시인은
이 세상을 풍진이라 했다

세상은 온통 바람과 먼지
인생도 삶을 마치면
한 숨의 재로 가는데
사는 동안 세상의 모든 재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듯한다

권력과 지위도 권불십년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갈듯
그렇게 알량한 권세를 휘두른다

눈이 내칠 때면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
허공에 꽃을 피우지만
모두가 허망한 꽃

회색 하늘 흘 뿐하는 눈 속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춤onga 중의 꿈이요
이 풍진세상 속에서 희망은 무엇일까



김선재 건축사 作

뉴텍 건축사사무소(광주)/
광주건축사마술동호회

'수퍼맨 건축사'

하나의 건축물이 시작에서부터 완성되기까지에는 전 과정에 걸쳐 건축사가 관여하게 된다.
내 작품을 넘긴다는 보람도 있지만 아술아술한 위험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수퍼맨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다. - 2022.04.05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백경 김무규
고택 안채전라남도 순천시
/ 2020년 4월 20일

2022 제16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FOOTBALL CLUB

• 일시: 2022년 4월 28일(목)~29일(금) • 장소: 광주보라매구장 • 개회식: 4월 28일 11시 30분 • 주관: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회장 조희환, 총무 박진호)